

요시유키 준노스케(吉行淳之介)

작품에 나타난 색채연구

- 『장미판매인』 『조수충어』 『불안한 병실』 고찰 -

鄭美淑*

(e-mail: smart_usg@hanmail.net)

目次

1. 머리말
 2.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의 의미 「赤」
 3. 소외된 상실감에 따른 허무의 색 「石膏」
 4.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의 상징 「白」
 5. 마치며
-

1. 머리말

르네 위그(Huyghe, R.)가 「색채란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불러일으키는 울림」¹⁾이라고 했듯이 요시유키 준노스케(吉行淳之介: 이하 ‘요시유키’라 칭함)²⁾의 작품 속에서 색채는 인간의 감성을 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요시유키 작품에 나타나는 색채들은 그의 유년기의 기억에서 출발하여 성장기 생활의 경험 속에서 재 생성되어 작품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요시유키 자신도 「일상적 생활에서 가벼운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을 클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수료, 근현대일본문학

1) 르네 위그 著·김화영역(1979) 『예술과 영혼』, 열화당. p.176

2) 요시유키 준노스케(1924.1-1994.7)는 모더니즘 시인이자 신인예술과 작가인 요시유키 에이스케(吉行エイスケ)와 미용사인 아구리(あぐり)의 장남으로 오카야마시(岡山市)에서 태어났다. 3살 때부터 도쿄에서 자랐다.

로즈업 해오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색에 대한 분류는 작품 속에서 명료한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³⁾고 말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미우라 마사시(三浦雅志)는 「요시유키의 소설은 눈(眼)의 소설이며, 시각은 말할 것도 없고, 청각, 후각, 미각, 혹은 촉각이 거의 병적일 정도 예민하다」⁴⁾고 평한바 있다. 특히 요시유키의 작품 속에는 여러 가지 풍부한 색채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중 「빨강」과 「흰색」, 「석고」, 「검정」 순의 묘사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그의 작품에 있어 시각적 표현수단인 색채는 외측묘사를 나타내는 수단임과 동시에 인간의 깊은 내면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요시유키의 색채에 대해서는 다카시나 슈지(高階秀爾)가 「요시유키 문학의 경우 색채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라며 요시유키 전 작품에 걸쳐 나타나 있는 색채에 대해 논하고 있고, 사쿠라이 도모코(桜井智子)는 『조수충어(鳥獸虫魚)』, 『어둠속의 축제(闇のなかの祝祭)』, 『모래위의 식물군(砂の上の植物群)』, 『암실(暗室)』에 나타나 있는 색에 대해 「赤」은 성충동의 방아쇠와 피, 「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은폐하는 공허, 「黑」은 성에 대한 불쾌감과 혐오의 상징」⁶⁾으로 각각의 색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사쿠라이는 위 4작품을 통해 사용되는 색채를 논하면서 『조수충어』에 나타난 石膏를 白에 포함시켰음을 밝히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 「石膏」와 「白」색에 대해서는 심리학자인 에바 헬러(Eva Heller)나 잉그리드 리델(Ingrid Redel)의 말⁷⁾이 뒷받침해 주고 있지만, 요시유키는 다채로운 색채감각의 소유자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시각으로 石膏와 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요시유키의 색채감각은 『원색의 거리(原色の街)』(「신초(新潮)」1956.1)에서 후각→시각→청각→촉각으로 이동되는 오감의 연속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장미판매인(薔薇販売人)』(『진실(眞実)』1950.1)에서 보여주는 색채의 향연은 그가 색채만으로도 충분히 작품을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 감각에 뛰어난 작가임을 알 수 있다.⁸⁾

3) 吉行淳之介(1983), 高階秀爾 「色彩による吉行淳之介論」 『安岡章太郎・吉行淳之介(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有精堂. p.210

4) 三浦雅士(1985) 「眼の遊戯」 『吉行淳之介全集』 別卷3, 講談社. p.179

5) 高階秀爾(1947) 「特輯 吉行淳之介」 『国文学』 第17卷 4月号, 学灯社. p.60

6) 桜井智子(1977) 「吉行文学における色彩」 『常葉国文』 2号, 常葉女子短期大学国文学. p.41

7) 「은색」에 대해,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에바 헬러는 「흰색과 은색은 의미가 같다」라고 구분하였고, 잉그리드 리델은 「은색은 흰색의 광택이다. 흰색이 빛을 받으면 은색으로 반짝이고 은색의 이름은 흰색에서 나왔다」로 정의하고 있다.

. 에바 헬러(Eva Heller) 著 · 이영희 訳(2002) 『색의 유혹』 예담. p.417

. 잉그리드 리델(Ingrid Riedel) 著 · 정여주 訳(2004) 『色の 신비』 학지사. p.268

8) 「실 불꽃놀이의 폭발음과 연기냄새, 아세틸렌 냄새, 밤 상점 앞을 지나가는 하얀 유카타나 셔츠색, 밤공기 속에 울리는 개다소리, 긴 콘크리트 벽에 손끝을 대고 걸어갈 때의

이와 같이 감각에 예민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색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요시유키 문학자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논자는 오감 중 특히 색채표현이 두드러진 50년대 초기작품 중 『장미판매인(薔薇販売人)』(「진실(真実)」 1950.1)⁹⁾, 『조수충어(鳥獸虫魚)』, (「군상(群像)」 1959.3), 『불안한 병실(漂う部屋)』(「문예(文芸)」 1955.11)¹⁰⁾을 중심으로 하여 사용빈도수가 가장 높은 색¹¹⁾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의 의미 「赤」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정열을 상징하지만, 「예수의 수난과 악귀를 나타내며 위험을 표시한다든지 피를 상징」¹²⁾하는 불길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요시유키 또한 「오키나와에서는 빨간색을 터부시 하는 의식이 강해서 원초적으로 빨간색을 피하고 있다」¹³⁾고 말한 바 있다. 나쓰메 소세키도 『그 후(それから)』(「아사히(朝日)신문」 1909.6.27-10.4)라는 작품을 통해, 작품의 근저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한 이미지를 빨간색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요시유키는 이에 대해 「신체적인 불안정과 심리적인 불안감이 표출되어 나타난 색」¹⁴⁾이라 말하면서 소세키의 『그 후』에 사용된 빨간색에 주목하였다.

까칠까칠 빛나는 손끝의 감촉」(『원색의 거리』 전집5권, pp.85-86)

「天然自然인 천연담장 울타리 표면에 가득 핀 하얀 꽃과 주홍빛 두 마리의 나비, 겹쳐진 금색줄기의 노랑 꽃잎, 오렌지색 열매」(『장미판매인』 전집1권, p.9)

9) 『장미판매인』에 대해 요시유키는 「처녀작에는 작가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따라서 어떤 작가도 처녀작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작가로서의 가능성도 포함된다. 의미에서 나로서 「장미판매인」은 정말 처녀작이다.」(『나의 문학방랑기』 전집8권, p.57)

10) 「漂う」는 「떠돌다, 방황하다」라는 뜻이고 「部屋」는 「방」에 해당되지만 작품배경이 병실이고 내용상 불안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병실」로 번역하였다.

11) 작품별 사용색채의 빈도 및 점유율은 다음 표와 같다.

작품/색채(횟수/%)	빨간색	흰색	석고색	검정색	청색	노란색	기타
장미 판매인	12/(37)	9/(28)	4/(12)	2/(6)	1/(3)	2/(6)	2/(6)
조수충어	8/(14)	4/(7)	18/(31)	7/(12)	3/(5)	15/(26)	2/(3)
불안한 병실	17/(25)	30/(45)	2/(3)	2/(3)	13/(19)	1/(1)	1/(1)

12) Ad de Yries著·山下主一郎(訳)(1994) 『イメージシンボル事典』 大修館書店, p.597

13) 吉行淳之介(1984) 「赤い色のまがまがしさ」 『現点3号』 現点の会, p.31

14) 전개주13) 『現点3号』 pp.30-31

「빨간색은 불길한 색이다. 소세키의 「그 후」라는 작품은 빨간색이 상당히 많다. 소세키는 그 글을 끝낸 후 만주와 한국을 여행할 예정이었지만, 위궤양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위가 불안정한 때에 빨간색이 나오는 것 같다. 때문에 「그 후」는 육체적으로 불안정함이 깃들여 있어 빨간색의 빈도가 많은 것 같다.」

특히, 요시유키는 유년기에 「붉은 저녁놀을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바지에 실수를 해 祖母에게 호되게 혼이 났던 경험」¹⁵⁾을 예로 들면서 빨간색을 불길한 색으로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빨간색 저녁놀에 대한 유년기의 경험은 요시유키가 수많은 작품에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 풍경이다.

저녁놀에 대해 쓰게 미츠히코(柘植光彦)는 「후쿠나가 다케히코(福永武彦)나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역시 자주 묘사하고 있는 풍경이지만, 후쿠나가 다케히코의 저녁놀은 항상 죽음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고, 미시마 유키오의 저녁놀은 가장 아름다움을 우선하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요시유키의 저녁놀은 인간을 압박하고 불안을 조성하며 피로감을 주는 대표적인 것」¹⁶⁾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의 색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작품으로는 『불안한 병실』¹⁷⁾을 들 수 있는데 이곳 배경이 되는 기요세 요양소(清瀬療養所)¹⁸⁾는 요시유키가 결핵에 걸려 입원했던 곳으로 그의 실 체험이 바탕이 되고 있다. 『작품 冒頭の 아키코(アキ子)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다.

벤치에서 일어섰을 때, 반대 측 1루 베이스 가까이 놓인 의자에서 일어난 빨간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내 눈길을 끌었다. 나는 그 여자의 수 미터 뒤에서 병실을 향해 걸어갔다. 여자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환자이다. (『불안한 병실』 전집1권. p.209)¹⁹⁾

작품 도입부부터 환자인 아키코가 특이하게 빨간 립스틱과 빨간 스커트를 입고 있는 것에 주목된다. 뒤를 쫓던 아오야마(青山)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에 그녀를 환자라고 인식하였는데, 여기서 아키코의 빨간 립스틱과 스커트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빨간 스커트의 아키코에게 아오야마의 관심은 시작된다. 이는 아키코가 빨간 스커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인데 아오야마가 갖는 아키코를 향해 싹트는 감정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얼

15) 吉行淳之介(1998) 「石膏色と赤」 『吉行淳之介全集』 第13卷, 新潮社. p.243

16) 전계주3) 吉行淳之介(1983), 柘植光彦 「関係性のなかの幻想」 有精堂. p.204

17) 「요시유키는 1952년에 폐결핵이 발병, 기요세요양소에서 1954년 1월, 폐 절제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퇴원했다.」

. 菅野昭正他(1991) 「人間疏外の文学」 『日本の作家21』 小学館. p.22

18) 기요세 요양소는 도쿄도(東京都) 기요세시(清瀬市)에 위치해 있는데, 기요세시는 도쿄부립병원(東京府立病院)을 비롯하여 15개 이상의 결핵요양원이 집결되어 있는 곳으로 「결핵의 거리」로 알려져 있다.

19) 본문인용은, 吉行淳之介(1997) 『吉行淳之介全集』 新潮社. (第1卷 『장미관매인』 『불안한 병실』, 第2卷 『조수층어』)에서 하였다. 번역은 필자가 하였으며 인용문 뒤에는 작품명과 페이지를 기입하였다.

굴에 약한 표정이란 찾아볼 수 없고 뭔가 자신감이 강한, 뽀뽀하기까지 한 여자」로 역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아키코에 대한 애증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아키코는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지 않는 중증환자란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 세탁실 건조대에 걸려있던 하나 남은 「빨간 속옷」을 본 아오야마는 그 속옷도 아키코의 것이라고 믿으며 여러 가지 억측 속에 관심을 내비친다. 여기서 비에 젖은 속옷은 장기 환자인 그녀를 내심 걱정하는 아오야마의 생각대로 물기를 머금은 묵직한 상태이며 이러한 질량감을 나타내는 「빨간 속옷」은 「빨간 스커트」를 입은 아키코를 떠올리는 동시에 그녀가 불길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복선이 되기도 한다.

나는 내 침대로 가는 도중 문득 아오야마의 침대 밑을 보았다. 그곳에는 빨간 슬리퍼가 나뒹굴고 있었다. 나는 아오야마가 빨간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눈치 챘던 것이다. (중략) 내가 문득 병실구석에 있는 큰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빨간 슬리퍼가 버려져 있었다. 그 슬리퍼는 양쪽 발부리가 크게 벌어져 있었다. (『불안한 병실』 p.212, p.252)

침대 밑에 놓인 아오야마의 빨간 슬리퍼에서 ‘나’는 그가 끝까지 아키코란 여자를 자신의 거울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 후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오야마의 빨간색의 낡은 슬리퍼가 말해주듯 아키코에 대한 집념은 마음의 상처로 남아 환자인 그에게 깊은 실연을 안겨준다. 이와 같이 빨간색은 「피, 상처, 죽음의 고통과 관계가 있으며 고통치는 피와 불의 색으로 격동적이고 비통한 정서를 상징한다」²⁰⁾라는 말처럼 여기서 말하는 불길한 이미지의 빨간은 색을 뛰어넘어 병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암울함에서 피의 상징으로 미래의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색채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작품의 배경이 병실인 만큼 수술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수술광경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을 입수해 연구하는 대목이다.

폐절제술이라는 것은 몸의 등 측면 부분을 크게 절개하고 늑골을 빼고 안에서 폐를 빼내어 空洞이 있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이 광경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에는 얇은 피부사이에서 꺼낸 크고 넓은 폐 조직이 탁한 홍색으로 그곳 여기저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쇠장식이 붙어있다. 절개입구 살은 짙은 빨간색이다. (『불안한 병실』 전집1권. p.230)

20) 이승훈(1995)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p.284

수술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나’는 가옥개축의 설계도라도 만들듯이 책상 위에 지면이나 서류를 올려놓고 자신에게 자극이 되지 않을 때까지 몇 번이나 반복해 바라본다. 하지만 수술 후 들것에 실려 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위협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불안은 주인공 ‘나’가 수술 후 일종의 환각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사경을 헤매는 다음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극도로 불안한 심경이 「새빨간 주유소」를 통해 상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다.

평소 생각하지 않은 먼 곳의 길모퉁이 풍경 등이 희미한 냄새를 동반하고 눈앞을 천천히 스쳐간다. 그 길모퉁이 풍경 속에는 BANK라는 가로문자로 보이는 은행의 흰 건물이라든가 우체통이 있는 교차로, 새빨간 주유소가 보이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적막한 완전히 잊혀져간 토지와 같은 풍경이었다. (『불안한 병실』 전집1권. p.238)

‘나’는 마취 후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에 대해 강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리고 추운 날씨임에도 발끝부터 심한 열기를 느끼며 체온이 떨어져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급격하게 떨어진 체온으로 인해 「영도까지의 눈금 사이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세포들이 전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이로 인한 통증이 「1초 1초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온 몸으로 전달되는 것에 떨게 된다. 또한 환청으로 들리는 여자의 가느다란 노랫소리와 파란 청죽색 하늘에서 점점 짙은 녹색을 띠어가며 눈앞을 덮쳐오는 환각에 ‘나’는 심한 괴로움을 겪는다. 그리고 그 기나긴 단조로운 반복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한참을 괴롭힌다. 그러한 「생과 사」라는 고통의 경계에 서서 고통과 싸우면서 환각 속에서 강한 빛을 발하는 「새빨간 주유소」가 스친다. 이는 죽음과 맞서 저항하는 주인공의 삶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의 표출이 빨간색을 통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빨간색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작품은 『장미판매인』이다. 주인공 히이지로(桧井二郎)는 어느 날 회사에 갈 생각으로 집을 나왔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꿔 근무처와는 다른 방향의 버스에 몸을 싣는다. 적당한 곳에 내려 시가지를 배회하던 중 문득 발길을 멈추는데, 그의 흥미를 끈 것은 「판자로 된 작은 가건물」속 방내부의 모습이었다. 텅 빈 방안의 한쪽 벽에 걸려있는 「빨간 하오리」가 그의 눈길을 끈 것이다.

한적한 방안 벽에 오로지, 꽃장식과 같이 걸려있는 짙은 빨간색의 여자 하오리가 뭔가 불길한 기운을 띠고 있다는 생각이 지로의 뇌리를 스쳤다.

(『장미판매인』 전집1권. p.8)

여자의 「빨간 하오리」에 끌려서인지 히이 지로는 한 다발의 딸기줄기를 구입해 가짜 장미라 속여 팔 생각으로 다시 그 집을 방문한다. 그때 그를 맞은 사람은 미와코(ミワコ)라는 여자였고 지로는 미와코에게 흥미를 갖게 된다. 이후 그곳에서 미와코의 동거남인 이루마 교고(伊留間恭吾)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미와코가 집에 있는 시간대에 저는 없어요」라는 묘한 말을 남긴다. 그리고 이루마는 지로에게 미와코의 순진함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며 「미야코란 여자는 속이 텅 빈 맥주병과 같은 여자」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그러나 지로는 미와코에 대해 「집착증 환자」의 눈을 가진 이루마에 대해 의혹을 품게 된다. 그런 이루마의 의혹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은 그 집을 네 번째 방문했을 때이다.

지로는 미와코와 들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순간 지로는 이루마가 후스마 뒤에서 두 눈을 번뜩이며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루마의 음모를 밝혀내려고 후스마를 열어젖히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곳은 텅 빈 공간이었다. 결국 지로는 이루마라는 남자의 의혹을 파헤치려다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켜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赤」색의 저변에는 불안한 심경이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불신의 불안 속에는 부도덕이라는 관념이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부도덕은 정신과 육체라는 미묘한 관계 속에서 性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요시유키가 말하고 있는 남녀 행위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 기저에는 「부도덕」이라는 「赤」색 신호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은 『화염속(焔の中)』(「신초(新潮)」1956.12)에도 그려져 있듯이 「전쟁 중에 죽는 것만을 생각」²¹⁾해 왔던 이들 전후세대로서 혼란기 삶에 대한 염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반증하는 불안을 「赤」으로 그려내고 있다.

3. 소외된 상실에 따른 허무의 색 「石膏」

요시유키의 작품은 「석고색 없이 성립될 수 없다」²²⁾라는 가미야 타다다카(神谷忠孝)의 말처럼 『조수충어』와 『장미판매인』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거리의 풍물은 모두 석고색이다. 지면에 딱 달라붙어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

21) 「생명강한 빛으로 타는 20세라는 연령이, 오늘로 끝날 경우, 고전을 읽다 만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지만 여체를 읽다만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후회할 것이 틀림없다」

. 久保田芳太郎(1985) 「焔の中」 『国文学解釋と鑑賞』 6월호, 至文堂. p.29

22) 神谷忠孝(1975) 「吉行淳之介・キーワード」 『国文学解釋と鑑賞』 10월호, 至文堂. p.145

들은 석고색의 딱딱한 껍질에 덮힌 곤충이었다. 이러한 기계류뿐만 아니라 길 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길모퉁이에서 순간 마주친 사람들도 모두 내 눈 속에서 여러 변형과 퇴색을 일으켜 순식간에 석고색의 낯선 동물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어느 때는 목을 길게 늘여서 있고, 어느 때는 입술이 크게 돌출되어 있고, 어느 때는 양팔이 넓게 부풀어 있거나 일순간에 본 기억이 없는 형태를 하고 있다. 그들은 각각 새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물고기 형태와 닮아는 있지만 확실히 무어라 규정지을 수 없는, 나와 관계의 기억속에서도 찾아 낼 수 없다. (『조수충어』 전집2권. p.60)

눈 밑에 석고색 시가가 펼쳐져 있고 그 속에 곤충의 촉각과 같은 뿔을 비스듬히 내밀고 고풍스런 전차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다.(『장미판매인』 전집1권. p.7)

전자는 주인공인 ‘나’의 내면을 암시하고 있고 후자는 풍경묘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이 두 작품의 서두에는 석고색의 어두운 이미지가 강하게 묘사되어 있다. 인간이 사물화 되고, 사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할 거리 곳곳에 활력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석고색으로 대변되는 사물들로 채워진 적막한 도시의 풍경만이 흐르고 있다. 먼저 『조수충어』에 주목해 보자.

서적몽치는 둔한 소리를 내며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형태가 망가진 채로 떨어졌다. 이들 서적들은 길 여기저기 서점에 몸을 누이고 그 서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기다렸지만 실패했다. 실패한 서적들의 수는 너무나 많다. 혹시 그 책이 한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상처가 되겠지만 그 서적을 만드는 일에 한몫을 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니 그 우연한 만남을 바라던 내가 허무했다. 실패한 서적들은 한곳에 모여져 끈으로 결박당해 반송되어왔다. 그것이 두둑히 내 눈앞에 쌓아올려져 있었다. (『조수충어』 전집2권. pp.63-64)

주인공인 ‘나’는 거의 다 쓰러져가는 출판사의 편집부에 근무하고 있다. 어느 날 ‘나’는 반송되어 돌아온 몇 개의 서적몽치가 굵은 밧줄에 묶여 트럭위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내던져지는 소리를 들으며, 결박당한 채 사람들의 발에 차여 지는 이 서적몽치가 억눌리고 소외된 자신의 분신이라 생각한다. 이는 팽개쳐진 서적 몽치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 것으로 이러한 ‘나’의 버려지고 소외된 심정은 작품 곳곳에서 석고색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인공 ‘나’는 모든 인간적인 따스한 관계를 상실했고 보이는 모든 풍물이나 길에서 만난 사

람들조차도 모두 「새, 짐승, 벌레, 물고기 형태와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석고색으로 퇴색된 모든 사물은 인간사회에서 어떠한 인정미조차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허무와 공허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은 그 허무에서 구원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석고색 세계에 빠져있는 ‘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인공은 인간적인 교류가 차단된 소외되고 쓸쓸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 유일한 방법은 여자의 몸이었다.

매일아침 그러한 거리를 빠져나와 나는 하나의 방으로 들어간다. 방에는 낮익은 사람들, 내 동료들, 색채를 가진 인간들이 책상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책상 주변을 돌아다닌다. (중략) 내 자리 가까운 곳에 한 여사무원이 앉아 있다. 그 여자는 소위 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방안의 남자들은 일제히 열렬히 혹은 의미 있는 시선으로 그녀를 향해있다. 그러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궁지를 갖고 등을 꼳꼳하게 세우고 앉아있다. (『조수충어』 전집2권. p.60, p.63)

일상적인 거리의 풍물도, 회사 사무실의 동료들도 ‘나’와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는 ‘미인’의 여사무원도 모두 똑같이 석고색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인인 여사무원과 비밀리에 관계를 갖고 있고 그녀와 몸을 섞는 둘만의 시간부터 그녀는 생생한 색채를 띠어간다. ‘나’가 색채를 볼 수 있는 것은 회사원이라는 직장생활에서 멀어진 세계에 있을 때뿐이며 ‘나’로서는 석고색의 공허한 생활에서 생생한 색을 찾아감으로서 여사무원과의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석고색」이라는 배경속의 일상생활에서 「생생하게 물든」 여자들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선명한 색채」의 충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요시유키의 색채효과는 『조수충어』의 상징성을 명확히 떠올리게 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나’의 회사동료 야마우에(山上)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는 장면이다.

그녀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얼어맞은 듯 멈춰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그 몸은 책상위로 천천히 무너졌다. 그 때 그 몸은, 내 눈 속에서 석고색 덩어리로 비춰지지 않았다. 오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몸 깊숙한 곳에서 쥐어짜 올리는 듯한 소리였다. 어깨와 등이 심하게 파도쳤다.

(『조수충어』 전집2권. pp.84-85)

‘나’는 처음으로 그녀와 야마우에와의 사이에 조용한 관계가 있었음을 직감하는데 ‘나’와 그녀와의 연결이 무엇이었는지도 명확했다. 책상 앞에서 울고 있

는 그녀는 이제 「석고색 덩어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외의 살인사건은 감춰져 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눈앞에 펼쳐져 발각되는 것이며 석고색이었던 것들이 색채를 띠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숨겨져 왔던 것들에 대한 폭로로서 「허무」에서 「인간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무의 상징은 초상화 화가인 요코(よう子)와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는 그녀의 옷을 벗겨내고 등에 커다란 상흔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중략) 나는 그녀의 왼쪽어깨를 확 뒤로 제치자, 어깨뼈 밑에 뜻밖의 커다란 어두운 웅덩이를 발견했다. 나는 그녀를 그 자세로 세워둔 채, 심장뒤쪽에 있는 어두운 웅덩이를 바라보았다. (『조수충어』 전집2권. p.88)

요코라는 소녀가 나체가 되고, 큰 상처를 갖고 있고, 그 상처로 인해 변형된 몸을 갖고 있기도 한 이와 같은 숨겨진 비밀을 발견한다고 하는 설정은 주인공이 자신의 거울로 요코를 바라보는 시선일수 있다. 위와 같이 傷痕을 발견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들은 「석고색」에서 다른 색을 띠어간다는 것으로, 상실한 인간미와 소외감을 덮어가는 온정이며 폐 수술로 등에 상처를 갖고 있는 요코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위 자기와의 동질성이란 연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수충어』는 주변 세계로부터의 관계를 잃고, 마음속에 행한 공허함을 느끼는 커다란 어두운 구멍을 가진 남자가, 똑같이 어두운 소동굴(小洞窟)을 가진 여자를 만나 그 여자와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석고색이란 허무의 세계에서 다른 생생한 색을 띠어가는 것으로, 여자의 「동굴」을 매워주는 꿈을 꾸게 되어간다는 이야기로 「공허」에서 「충족」이라는 인간성 회복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석고색의 세계는 나와 전혀 이어짐 없는 차단된 외부를 상징하고 그에 반해 색채를 띤 세계로의 인간의 얼굴은 나와 인간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공 ‘나’는 「석고색」의 세계에서 「색채를 띤」 세계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일상이 회색 즉, 석고색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단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만이 유일한 구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작품이 갖는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석고색은 여직원과 초상화 화가 요코와 주인공 ‘나’와의 일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극히 상징적인 색채로 볼 수 있다. 기계류뿐만 아니라 길 위를 스치는 사람들까지 나의 눈에 석고색으로 비취지는 것은 나의 심경이 허무하고 공허함의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조수충어』는 「석고색」이란 것을 중심으로 한 커다란 유니크한 사랑 이야기의 반복이며 그 속에 이러한 감각들이 녹아있는 줄거리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미판매인』에서도 회사의 말단사원인 지로는 출근하다가 갑자기 회사와는 반대방향의 버스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적당한 장소에서 하차한다. 이는 기발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기 때문인데 그런 그가 고지대의 마을에 다다르자 문득 눈길을 끈 것은 가구 하나 없는 방안 벽에 걸린 빨간 하오리였다. 이후 미와코와 둘만의 관계를 이루다가 엿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후스마를 열었을 때 후스마 뒤는 「텅 빈 공간」이었는데 이것은 지로의 내면심경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규율이나 상식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일종의 반항적은 심경은 전후(戰後) 일본사회에 팽배해 있던 사람들의 상실감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실감에서 오는 허무의 상징을 석고색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4.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의 상징 「白」

흰색은 일반적으로 순결이나 순수를 상징하지만 「고양이에 비유해 靈의 색으로서 공포와 죽음을 예고하는 색」²³⁾이기도 하다. 또한 「굴절된 빛의 모든 색을 다시 모으는, 마지막을 나타내는 색으로서 죽음의 색」²⁴⁾이라 말하고 있다. 다카하시 히데오(高橋英夫) 역시 요시유키를 「색채 인간」이라고 칭하면서 「일곱 색을 가진 원반이 빠르게 회전할 때 생기는 근원적인 흰색이라는 의미로 백의 인간」이라 평하고 있다. 「백색 인간」이란 말과 어울리게 작품 속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白」이 갖는 이미지는 그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다음 『동요(童謡)』(『군상』1961.1)의 한 구절을 살펴보자.

고열은 계속되었다. 고열을 내기 위해선 연료가 필요하다. 그 연료에 소년의 살과 피가 소모된다. 몸과 팔과 다리의 살은 금세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그럼에도 소년의 몸의 고열은 계속된다. 그 때문에 콧등 살과 두피와 잇몸 살도 없어졌다. 두피관절이 손끝을 스쳤다. 무릎 뼈가 가느다란 소나무 가지의 혹 처럼 크게 돌출되었다. 엉덩이 살도 전부 깎여 향문이 긴 관처럼 돌출해 버렸다. (『동요』 전집2권, p.329)

23) 전계주20) 『문학상징사전』 p.284

24) 전계주7) 『색의 신비』 p.230

고열 때문에 해골과 같이 야윈 소년, 하얀 병실, 하얀 침대, 이 느낌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두말 할 필요 없이 「白」 일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는 다음 「유서」에서도 나타난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 여기저기 작렬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윽고 천지가 발각 뒤집힐 듯 땅이 울렸지만, 그래도 화장실이 가고 싶었다. 그 사이 소동도 그치고 살아서 다시 보게 되는 자신의 백색 유서종이가 쑥스럽게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항상 숨었던 가까운 방공호가 직격탄을 맞아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두 번 다시 자살할 마음이 사라졌다.

(『장미관매인』 전집1권. p.22)

이루마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많지 않은 재산을 탕진하고도 일할 의욕을 상실해버린 일종의 환자 같은 사람으로 미와코와는 동거하는 관계이다. 그가 가끔 이야기 중에 동거하는 젊은 남녀가 세상을 체념하고 동반자살하려 했을 때, 의사인 친구가 청산가리 대신 탄산마그네슘 주는 바람에 그걸 마시고 밤새 이유도 모른 채 두 사람이 화장실을 들락거렸다는 지어낸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에 친구는 덧없는 죽음이란 문제를 가벼이 농담 삼아 하는게 아니라며 약취미인 이루마를 타이른다. 하지만 이루마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과거 자신에게 숨겨진 이야기였고 전쟁말기 잣 대학을 졸업할 즈음 자살을 기도하고 유서를 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자신이 탄산마그네슘을 마신 후 화장실을 들락거렸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인데, 이는 죽음이 보이는 전쟁말기 생사에 관해 깊은 생각을 했던 『화염 속(焰の中)』(「군상(群像)」1955.4) 주인공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전쟁이 끝날 때 쯤 자신은 죽어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죽음과 밀접한 관계는 작가 즉, 주인공의 경험과도 연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체험소설의 연결인 「백색 작품」으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불안한 병실』이다. 이곳 요양소는 장기 환자들이 모인 「외과 병실」과 단기 환자들이 모인 「내과 병실」로 나뉘어져 있다. 내과 병실의 단기 환자들은 수술 가능한 상태로 6개월 후부터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줄무늬 유카다의 환자복으로 구분되어 있고, 외과 병실 사람들은 안정과 화학요법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기 환자들로 백색 환자복을 입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 ‘나’는 수술 가능한 단기 내과병실 환자로 배치되어 이곳 요양소에 입소한 후, 처음으로 「白」색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비공(鼻孔)에는 산소흡입 고무관이 꼽혀있고 혀가 물리

지 않게 하얀 기구가 입안에 넣어진 채, 얼굴은 하얀 시트색과 같이 창백하다. 또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의 개인 실에는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의 신음소리나 물을 달라는 아우성소리가 늦은 밤까지 들려온다. 이 소리를 듣고 있자니 나 역시 괴로운 기분이 들었다. (『불안한 병실』 전집1권. p.210)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에서 병원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도구들은 차가운 금속성이나 「흰색 물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백색에 대해 『색의 유혹』 25)에서는 「죽은 자, 유령, 귀신의 색」으로도 표현되고 있지만 특히, 병실에서의 백색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색이란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나’는 이 곳 요양소 입소 얼마 후 수술을 위해 큰 방에 속해있는 개인병실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나 큰 방의 「하얀 커튼」이나 좁은 개인병실의 새로 칠한 사방의 「흰색 벽면」이 모든 색은 ‘나’에게는 죽음을 연상케 하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들것에 태워져 수술실에서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흰색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데, 이러한 흰색의 공포는 수술을 앞두고 극에 달하게 된다. 더구나 환자들의 「창백한 얼굴」, 침대위의 「하얀 시트」, 중증환자들을 고립시켜 놓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하얀 칸막이」 안의 상황 등이 흰색 공포를 더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흰색이 가득한 공간 안에서 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요양소란 장소의 특성상 환자들은 흰색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간호사들의 의복이다. 얼마 후, ‘나’는 수술을 위해 큰 방에 속해있는 개인병실로 가게 된다. 병원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청결의 색으로 사용되고 있는 흰색은 죽음의 공포라는 심리적인 영향 하에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녀는 가볍게 주먹 쥔 한쪽 팔을 이불에 내어놓고 천정을 향해 내밀었다. 잠옷이 스르르 내려가 팔꿈치 위까지 노출되었다. 드러낸 팔 피부진면이 순간 어 아련히 따뜻한 공기와 맞닿았다. 희고 여린 피부 밑에 파란 혈관줄기가 투명 하게 비쳤다. (『장미판매인』 전집1권. p.28)

『장미판매인』에서 지로가 미와코의 팔에 주사를 놓는 과정이다. 지로는 앰플의 가늘고 잘록한 것을 줄 실로 문질러 갈아 주사기 속으로 액체를 빨아올리려 했고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여기서 날카롭고 예민한 「하얀 은색」 바늘은 흰색이라는 공포와 맞닿아 바늘이 주는 차갑고 날카로운 의미가

25) 전개주7) 『색의 유혹』 p.235

더해져 미와코의 앞날에 불확실하고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여름휴가』(「문학계(文学界)」1959.6)에서도 실제경험담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좀처럼 집에 들어오지 않던 아버지가 어느 날 찾아오게 된다. 그 때 아버지는 낯선 젊은 여자를 동반하고 있었고,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 당시 여행도중 삼원산(三原山)의 화구까지 올라갔을 때의 장면을 요시유키는 이렇게 적고 있다.

문득, 이치로는 아버지 쪽을 보았다. 이치로는 순간 당황해서 눈을 돌렸다. 젊은 여자의 하얀 손목을 위에서 꼭 쥐고 있는 아버지의 크고 억센 손이 클로즈업 되어 이치로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여름휴가』전집1권. p.178)

이때의 장면은, 그의 소설 속에서 대단히 인상 깊은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작품의 효과에 중요함을 담당하는 「하얀 손」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치로가 본 아버지의 여자로 보이는 그녀의 하얀 손은 어린 이치로에게 뼈아픈 상처의 「백」색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이는 요시유키에게 있어 어린 시절 풍경에 대한 기억으로 빼놓을 수 없는 기억이며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백색 저녁놀」이다. 빛이 소멸해가는 시간의 해가 저물 무렵의 백색 저녁놀은 소외된 고독감과 죽음을 예감하는 두려움의 상징으로 요시유키의 내면세계를 잘 그려내고 있다. 그의 유년기의 기억의 매듭으로 자신을 망연자실케 했던 백색 저녁놀, 그 「백색」은 소멸해 가는 저녁놀과 같이 성인이 되고서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을까.

5. 마치며

이상과 같이 『장미판매인』 『조수층어』 『불안한 병실』 세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赤」·「石膏」·「白」색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赤」색은 『불안한 병실』에 등장하는 중증환자인 아키코의 빨간 스커트와 립스틱, 아키코가 중증환자임을 암시하는 물기를 머금은 빨간 속옷, 그리고 아키코, 아오야마 두 사람의 빨간 슬리퍼가 미래의 불안을 상징하는 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인공의 ‘나’가 수술 후 환각속에서 본 주유소 표시의 새빨간 스탠드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의 붉은 폐 조직, 수술절개 입구의 짙은 빨간색은 불안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미판매인』에서도 작품 전반에 흐르는 불안의 요소가 빨간 장미와 하오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石膏」색은 『장미판매인』이나 『조수충어』에 묘사되고 있듯이 주인공들이 느끼는 공허 및 허무감을 상징하고 있다. 『조수충어』에서는 「석고색」과 「조수충어」 즉, 「새.짐승.벌레.물고기」라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설정을 빌어 일본사회에 팽배해 있던 사람들의 상실감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된 인간관계의 상실감에 대해 『조수충어』는 일반 세상으로부터의 소외감을 석고색이라는 이미지로 훌륭히 표현해 내고 있다. 즉, 현실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의 차질이 빚어내는 허무와 공허감을 요시유키는 색채의 배합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적 정황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가고 있는 것이다.

「白」색은 주로 중증 환자들의 창백한 얼굴, 하얀 시트, 하얀 수술도구, 환자가 죽어 나간 뒤 배정받아 누워있는 고정된 침대위의 하얀 천정이나 병실의 벽면 등으로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시유키는 인간존재의 부정확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赤」으로, 戰後에 나타난 소외된 인간다움을 상실한 허무의 색채로 「石膏」를, 병실에서 죽음과도 같은 두려운 공포를 「白」색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參考文獻】

- 르네 위그 著·김화영訳(1979) 『예술과 영혼』 열화당. p.176
 에바 헬러(Eva Heller)著·이영희訳(2002) 『색의 유혹』 예담. p.230, p.417
 이승훈(1995)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p.284
 잉그리드 리델(Ingrid Riedel)著·정여주訳(2004) 『색의 신비』 학지사 p.268
 神谷忠孝(1975) 「吉行淳之介・キーワード『国文学解釋と鑑賞』 至文堂. p.145
 菅野昭正 他(1991) 「人間疏外の文学」 『日本の作家21』小学館. p.22
 桜井智子(1977) 「吉行文学における色彩」 『常葉国文』2号, 常葉女子短期大学国文学会. p.41
 高階秀爾(1947) 「特輯 吉行淳之介」 『国文学』第17巻 4月号, 学灯社. p.60
 中島国彦(1947) 「焰の中」 『国文学』第17巻 4月号, 学灯社. p.119
 三浦雅士(1985) 「眼の遊戯」 『吉行淳之介全集』別巻3, 講談社. p.179
 三浦雅士(1985) 「衰弱からの再生」 『吉行淳之介全集』別巻3, 講談社. pp.69-70
 吉行淳之介(1997) 『吉行淳之介全集』第1.2巻, 新潮社
 吉行淳之介(1984) 「赤い色のまがまがしさ」 『現点3号』 現点の会. p.31
 吉行淳之介(1998) 「石膏色と赤」 『吉行淳之介全集』第13巻, 新潮社. p.243
 吉行淳之介(1983) 『安岡章太郎・吉行淳之介(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有精堂. p.204, p.210
 Ad de Yries著·山下主一郎)訳(1994) 『イメージシンボル事典』大修館書店. p.597

要 旨

本論では『漂う部屋』, 『薔薇販売人』, 『鳥獣虫魚』を中心に作品の中に現れている「赤」, 「石膏」, 「白」という色彩の役割と意味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

「赤色」は『漂う部屋』に登場人物で重症患者であるアキ子の赤いスカートとリップスティック、また、彼女の病気の重々しさを暗示するような水気を含んでいるアキ子の赤い下着、そして彼女と青山の二人の赤いスリッパは未来の不安を象徴している色として現れている。また、手術の後、幻覚の中で見た真赤なガソリンスタンドと、「私」が手術の光景を撮した天然色の写真の赤色である肺の組織と切り口の鮮やかな肉は赤色は不安の象徴で作用している。『薔薇販売人』からも、作品の全般的に流れている不安の要素が、赤のバラと羽織を通して現れていよう。

「石膏色」は『薔薇販売人』と『鳥獣虫魚』で描写されているように主人公たちが感じる空虚と虚無感を象徴していると言えよう。『鳥獣虫魚』では「石膏色」と「鳥獣虫魚」、すなわち「鳥.獣.虫.魚」という抽象的で象徴的な設定を借りて日本社会で澎湃であった人々の喪失感を代弁しているとも見られる。このような疎外にした人間関係の喪失感について『鳥獣虫魚』は一般の世の中からくる疎外感を石膏色というイメージですぐれて表現している。すなわち、現実の社会の中で人間関係において難しさが醸し出す虚無と空虚感を吉行は色彩とを混ぜ合わせて登場人物の心的状況の変化を効果的に表現している。

「白色」については主に重症患者たちの蒼白な顔色、白いシート、白色の手術の道具、死亡した患者がつかった固定されたベッドの上の白い天井などか病室の壁面などから死を象徴している。従って、吉行は人間存在の不確な未来についての不安を「赤」で、疎外にされた人間らしさを喪失した虚無の色で「石膏」、病室で死のような恐ろしさを「白」を通じて描写しているといえよう。

Key Words : 色彩, 赤色, 石膏色, 白色, 病室, 不安, 虚無, 死, 疎外感

투 고 : 2014. 5. 31
1차 심사 : 2014. 6. 14
2차 심사 : 2014. 7. 5